



3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지원 최선"

# 전주매일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음 1월 24일) 제32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국내 우수 관광호텔 익산 도심권에 유치

### 전북도-익산시-엠엘비파트너스, 투자협약 체결 교통·지역축제 기반 야간 관광자원 개발 확충 부송동 일대에 227억 투입... 2024년 준공 목표

익산시가 국내 유수의 관광호텔을 도심권에 유치하며 '대한민국 체류형 관광번지'로 도약한다.

시는 1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주)엠엘비파트너스 이성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도심권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엠엘비파트너스는 익산시 부송동에 2024년까지 총사업비 22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층, 지상17층 규모 총 90실의 관광호텔을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지역 내 31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처리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지원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왔던 숙박시설의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의 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시는 도심권 호텔급 숙박시설 확충으로 500만 관광도시 진입, 야간 관광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2023년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해 현재 핵심 지원인 △교통 △먹거리 △지역 축제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새로운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도심권 숙박기반이 확대되면 미륵사지와 백제왕궁박물관 등 역사자원을 포함해 아가페 정원, 교도소세트장, 용안생태습지공원, 4대 종교힐링명소 등 지역민의 핫플레이스를 여유있게 연계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체와 소규모 관광객 등을 분야별로 나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서동축제 등 축제기간 동안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버스 1대당 40만원 을 지원하고, 상시 지원으로는 1인당 최대 1만7,000원의 숙박비, 수학여행 과 현장학습 단체 학생은 1인 최대 1만원까지 숙박이나 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야간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기울여 미륵사지 메타버스 조성 과 왕궁보석테마 관광지 놀이체험 시설 확충 등 역사와 문화를 품은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 중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광도시로의 높은 매력도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해 주신 (주)엠엘비파트너스 대표님과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광객에게 여행을 통한 휴식과 즐거움,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관광객 500만을 넘어 1,000만 시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주식회사 엠엘비파트너스의 투자로 익산시 관광인프라가 향상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산 관광호텔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1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주)엠엘비파트너스 이성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도심권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식이 열렸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화형 보호시설 필요"

###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제기

전용태 도의원, "발달장애인 정도 고려 지원책 전문  
자해·폭력성 등 이유로 센터에서도 거부당하는 중"  
광주광역시서 운영 중인 '융합돌봄센터' 사례로 제시  
"보조인과의 유대감 가장 중요... 시설 설치·확충 절실"



조인과의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충이 더욱 필요하고 그들의 가족들이 직장과 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 및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3일,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전용태 의원은 "지적과 자폐를 발달장애라고 말하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도전적행동이 강한 친구들을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하는데, 현재 전라북도는 발달장애인의 정도를 고려한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해, 타인에 대한 폭력성 성적 어려움 표출 등의 도전적행동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센터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전북도가 여태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전무했다는 것은 전북도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태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2021년부터 운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사례로 제시하며 "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광주에서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센터를 3년째 운영하며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는 쾌거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

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침을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광주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시범사례로 지정할 것에 이어, 이를 모델로 2024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용태 의원은 "우울증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해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동반자살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전북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고민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전북도가 조속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화형 보호시설'을 설치 및 확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힘을 내요! 튀르키예"

### 도 국제교류센터, 긴급구호물품 지원 나서 19일까지 주한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

튀르키예에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국제교류센터(이하 '센터')가 기부금과 긴급 구호물품 지원에 나선다. 센터는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피해복구 성금을 초북우산어린재단을 통해 튀르키예 이재민

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도민 대상으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물품을 오는 19일까지 접수받아 주한튀르키예 대사관에 일괄 전달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가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우호지역에 인도주의적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국제적 인도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대식 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특히, 우리와 역사·문화적으로 가까운 튀르키예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부 동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jb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